

본고는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해외조사팀에 의뢰하여 조사한 “러시아의 주류산업현황”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주류관련 법규 및 주류산업현황

목차

1. 러시아 주류산업현황
 - 가. 최근 주류산업 동향
 - 나. 주요 주류별 수출입 동향
2. 주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규제사항
3. 주류수입관리제도
 - 가. 수입허가요건
 - 나. 수입 절차
4. 주류관련 세금
5. 연료용 알코올현황

러시아의 1인당 주류 소비 동향

(단위 : 리터)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비량	8.59	8.69	9.01	9.11	9.15	9.14	9.1

자료원 : Business Analytica사, Happy Land Holding Co)

러시아의 주류 소비량은 200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3년에도 6.5%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주류 소비량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생활 여건 개선 및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러시아 주류산업현황

가. 최근 주류산업 동향

주류 관련 현지 전문회사인 “Business Analytica” 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연간 1인당 9리터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제품별 주류 총 소비량

(단위 : 백만 데시리터)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보드카	N/A	N/A	193	201	193	183	174
코냑/브랜디	N/A	N/A	4.5	5.2	5.9	6.8	7.5
포도주	N/A	N/A	56	61	66	73	80
맥주	451	525	635	705	758	796	828

자료원 : Business Analytica사

보드카 등 증류주가 러시아 전체 주류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계속해

서 감소하고 있다. ('99년 73.5%, 2000년 70.1%, 2001년 66.2%, 2002년 63.2%, 2003년 60.5%).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57.9%, 2005년 55.5%로 현재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드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꼬냑, 브랜드 등 중급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와인은 '99년 5.6%, 2002년 6.5%, 2003년 7%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8.6%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맥주는 '99년 17.9%, 2002년 26.9%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3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도 주류시장규모]

(단위 : 수량-천리터, 금액-US\$, 1인당 소비량-국민1인당소비량,리터)

구분	국내생산		수입		1인당 소비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맥주	6,270,000	N/A	141,240.56	47,379,900	44
포도주	378,590	N/A	267,214.36	272,979,200	3.9
보드카&리큐르	1,310,000	N/A	1,762.99	21,039,400	13.4
꼬냑	20,520	N/A	10,190.41	104,680,800	0.31
저알콜카테일	266,970	N/A	N/A	N/A	2.1
합계	8,246,080	N/A	420,435.32	446,079,300	63.71

* 국내 생산 통계의 경우 수량은 집계되어 있으나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2002년도 주류시장규모]

(단위 : 수량-천리터, 금액-US\$, 1인당 소비량-국민1인당소비량,리터)

구분	국내생산		수입		1인당 소비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맥주	7,020,000	N/A	106,538.15	40,572,600	49.2
포도주	431,900	N/A	318,510.28	286,371,600	4.25
보드카&리큐르	1,390,000	N/A	2,584.25	28,716,500	14.3
꼬냑	26,200	N/A	14,119.07	136,885,500	0.36
저알콜카테일	330,090	N/A	N/A	N/A	2.32
합계	8,809,480	N/A	441,751.75	492,546,200	70.43

* 국내 생산 통계의 경우 수량은 집계되어 있으나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2003년도 주류시장규모]

(단위 : 수량-천리터, 금액-US\$, 1인당 소비량-국민1인당소비량,리터)

구분	국내생산		수입		1인당 소비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맥주	7,570,000	N/A	152,605.03	60,032,500	52.6
포도주	484,840	N/A	426,984,983	382,441,900	4.57
보드카&리큐르	1,350,000	N/A	3,991.57	47,522,100	13.38
꼬냑	35,240	N/A	19,323.88	191,071,100	0.4
저알콜카테일	459,000	N/A	N/A	N/A	2.7
합계	9,899,080	N/A	602,905,463	681,067,600	73.65

* 국내 생산 통계의 경우 수량은 집계되어 있으나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잡지 "Vitrina"에 따르면 러시아 주류 생산협회에는 100여개 꼬냑 제조회사와 327개의 포도주 생산업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불법 주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짜 주류는 아직까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드카의 경우 매년 220-250 백만 데시리터가 소비되는데 공식 생산업체의 보드카 생산량은 120-140 백만 데시리터에 불과한 것을 볼때 약 50%의 보드카가 불법 주류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주류 제조업체로는 크리스탈사가 있으며 동사에서는 보드카 이외에 리큐르, 발삼, 진 등 75가지 제품을 생산하며, 브랜드로는 Ghzelka, Prazdnichnaya (Holiday 의미의 러시아어), Staraya Moskva(Old Moscow 의미의 러시아어), Zolotoye Koltso(Golden Ring 의미의 러시아어) 등이 있으며, 동사의 Crystall 브랜드의 보드카는 러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보드카중 하나이다.

꼬냑의 경우 모스크바 소재 "KIN" Wine and Cognac Maker, Kizlyar Cognac Maker, "Derbentsky" Cognac Complex Works (다게

스탄 공화국), Dmitrov Alcoholic Beverage Maker (모스크바 주), “MosAzerVinZavod” (모스크바) 등 총 5개 회사가 대부분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통계위원회 및 러시아 주류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요 포도주 생산업체로는 Istok (북 오세티아), Inter-Republic Wine Maker(모스크바), Detchinsky Factory (깔루가 지역), RORO (북 오세티아), Bodegas ValdePablo-Neva (레닌그라드 주), Tula Wine maker (톨라 지역)가 있다.

러시아 포도주 소비량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초 외환위기 이전 판매량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주요 포도주 생산업체들은 저가 포도주 생산하고 포도주시장 확대에 노력하였으나 2000년 업체 난립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덤핑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맥주시장의 경우 매년 맥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및 향후 전망이 밝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러시아 시장에 진입할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러시아 시장 전망이 밝아지면서 외국 유명 맥주 생산업체들은 현지 맥주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공장과 합작하거나 인수를 통해 러시아내 생산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 맥주회사들로는 BBH Holding Co. (덴마크Carlsberg; 영국 Scottish & Newcastle), Sun Interbrew (벨기에 Interbrew; 인도 Sun Group), SAB (남아프리카공화국), Heineken (네덜란드), Efes (터키) 등이 있다.

러시아내 외국맥주 제조업체

업체명	현지 공장	유명 현지 브랜드명
BBH	Baltika, YarBeer, DonBeer, Tula Beer, Pktra, Chelyabinsk Beer Factory	Baltika, Yarpivo, Tulskiye, Arsenalnoye
Sun Interbrew	Klin Beer Complex Works, Saransk Brewery, Perm Brewery, Rosar, Ivanovo Beer Factory, Povoljje, Patra, Simferopol Brewery, Bavaria	Klinskoye, Siberian Crown, Tostyak, Heineken
Efes	Moscow-Efes Brewery	Stary Melnik, Efes Pilsener, Warsteiner
SAB Miller	Kaluga Brewery	Zoiotaya Botchka, Try Bogatyrya, Holsten, Miller 등
Sinebruchoff/ Carlsberg	Vena	Nevskoye, Peterhoff, Tuborg, Sinebruchoff
Heineken	Heineken-Brewery (Bravo International)	Lowenbrau, Bear Beer, Bochkaryov, "Okhota" 등

자료원 : 잡지 'Profile'

2003 맥주 생산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 %)

업체명	점유율
BBH	36,5
Sun Interbrew	13
Ochakovo	7,4
Bravo International	5,5
Krasny Vostok	5,4
Stepan Razin	4,2
Efes Beverages Group	3,9
PIT(Ivan Taranov's Breweries)	3,5
South African Breweries	3,5
기타	17,3

자료원 : 잡지 'Profile'

저알콜음료의 경우 생산 업체들은 주로 주정공장 및 맥주 양조장을 겸하고 있으며 주요업체로는 빼 제르부르그의 Bravo Premium(Bravo International 맥주 제조사의 자회사), 모스크바의 Ochakovo (맥주회사), Veda(증류업체), Vena(맥주회사) 등이 있다.

Bravo Premium은 올 1-9월간 4.5백만 데시리터를 판매해 연간 5백만 데시리터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저알콜음료의 12.5%를 차지하는 것임.

나. 주요 주류별 수출입동향

러시아 관세위원회 통계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맥주, 보드카, 기타 H.S. Code 2208.90류 주류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수출 금액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맥주 수출량은 170%, 수출액으로는 160% 증가 하였다.

H.S. Code 2208.60의 보드카의 경우 2000년 이후 수출액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어 2003년 109%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33%나 감소하였으며 그 외 다른 주류들은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구 소련 국가들의 연합체인 CIS 국가들이 주류 관련 수출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러시아 보드카의 최대 수입국은 독일이며, 그 뒤를 이어 라트비아, 이스라엘, 미국, 영국, 카자흐스탄 순으로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식적인 통계를 살펴볼 때 한국은 주류 관련 제품의 주요 파트너는 아니다. 러시아 통계 위원회의 통계가 다소 부정확한 면을 감안하더라도 2003년 한국에 수입된 러시아산 주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 있는 러시아산 주류의 경우 제 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거나 제 3국의 바이어가 중개무역 등을 통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주류 수입동향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2001년 이후 거의 모든 주류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보드카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출국은 우크라이나로 러시아 수입 보드카 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다.

포도주의 경우 주로 몰도바, 프랑스, 그루지야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관세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와인과 도수가 높은 주류는 수입 주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 한국산 주류 수입은 거의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현지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 등 한국산주류는 타 경로를 통해 수입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주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규제사항

러시아의 경우 명확한 지원제도는 없으나, 관세 정책, 수입품에 대한 까다로운 라이선스 획득 절차, 통관 절차 등의 운용을 통해 무형의 지원을 하고 있다.

유일한 지원 규정으로는 연방 법 # 171-FZ of November 22, 1995 "On State Regulation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thyl Alcohol, Alcoholic and Alcohol-Based Drinks" Chapter # 7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지방 행정당국은 주류의 소매 영역 및 품질에 관한 주류 관련법을 집행한다. 이들 지방 행정 당국은 에틸 알콜, 주류, 알콜 성분 함유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부의 경우 직접적인 물질적 혹은 재정적 원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상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류 시장 규제는 연방 법 # 171-FZ of

November 22, 1995 “On State Regulation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thyl Alcohol, Alcoholic and Alcohol-Based Drinks”을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음. 동 법의 Chapter 5, Chapter # 6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당국은 에틸 알콜, 주류, 알콜 성분 함유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보드카 및 와인의 불법 생산 근절을 위해 실제로 자국 시장에 주류 마케팅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시행을 통해 러시아 연방 정부와 지방 행정 당국은 높은 재정 수익과 효과적인 주류 품질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류 시장의 특성상 주류 소비세 증가를 통한 세입 증가는 곧 러시아 청소년 및 러시아의 장래에 치명적인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불법 주류 생산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주류에 부과하고 있는 소비세를 삭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세 삭감을 통해 불법 주류 생산업자를 합법적인 시장 참여자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년 전 러시아는 하원 및 상원 의원, 일부 연방 장관, 지방 행정 담당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공청회에서 주류 관련법안이 더욱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법안에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러시아 주류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시스템의 중요성 강조 (라이센싱, 라벨링, 운송/유통 서류, 회계 및 보고 유형, 주류 생산 및 유통 확

인 절차 등), 주류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소비세 삭감, 상기 언급된 규제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 수출 및 수입을 하는 시장 참여자에 대한 차별 제거,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 도입, 관련 광고 규제 등과 같은 합리적 개념 도입을 통한 알콜 시장 규제 시스템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류 광고 규제에 있어 러시아 연방 당국은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광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TV 맥주 광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연방 반독점국(구 반독점 기업지원부)은 주류 광고에 있어서 제품명이 발음이나 묘사상 주류와 유사한 제품에 대한 광고 제한을 골자로 한 연방 광고법 개심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3월 연방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최근에는 공공장소 맥주 금지법이 두마(하원)을 통과하여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3. 주류 수입관리제도

가. 수입허가요건

연방법 Chapter 13 # 171-FZ of November 22, 1995 “On State Regulation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thyl Alcohol, Alcoholic and Alcohol-Based Drinks”는 주류 수입과 관련한 주요 규제로서 주류의 수출, 수입, 보관, 유통을 원하는 회사는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수출 및 수입 허가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수입산 주류의 경우(와인, 코냑, 맥주 제외) 러시

아내 연간 총 판매량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에틸알콜 함유량이 15% 이상인 주류의 경우 연간 총 수입량의 60% 미만이어야 하며 러시아에 수입된 외국산 주류는 러시아 국가 표준과 기술 규제에 의해 정의된 품질 규정에 부합해야만 한다.

법령 Chapter 21하에서 유통업자로서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는 적어도 1년동안 활동할 수 있으나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방 최저 월급(2004년 기준 600루블, 1US\$ = 29 루블 수준)의 40,000배에 달하는 약정자본이 필요하며 수입된 주류 판매는 연간 순수 에틸알콜 수치 50,000 데시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류의 수출, 수입, 보관업, 유통업에 관한 1회성 라이선스는 순수 에틸알콜 수치가 500 데시리터를 초과하거나 세관에서 관리하는 주류 금액 관점에서 연방 최저 월급의 100,000배 이상일 경우는 발행 이후 5개월 동안 유효하다.

나. 수입 절차

러시아의 수입 세관 통관 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수입업자들은 세관과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관 고위층과 비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일부 통관 전문가들은 통관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인해 사실상 뇌물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법규 Order # 1230, the R.F. State Customs Committee on December 28, 2000 는 주류 수입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업자는 세관 관계자로부터 물품세 인지 구

입을 구입하여 물품이 있는 외국에 인지를 송부하여 부착한다. 주류의 경우 관련 법 Order # 1230 에 따르면 면허세 인지는 포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병의 개봉 부분(뚜껑 부분)에 직사각형 인지를 부착하고, 부착된 인지는 저온 및 고온에서도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국경에서의 주류 통과시 수입자 혹은 브로커는 반드시 세관서류가 필요하며, 세관 창고까지의 제품 운송은 수입자의 물품세 인지 구입 신청서에 따라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하게 된다. 통관 절차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들을 구비한 후 통관하게 되며 세관 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물품세 인지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주류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HS CODE	품목	단위	관세율
2203	Beer	Litre	0,6 Euro per 1 Litre
2204101100-2204299900	Grape Wine	Litre	20%
2205	Vermouth and Grape Wine	Litre	20%
2206	Other Fermented Beverages	Litre	20%
2208201200-2208907800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spirits, liqueurs etc	Litre, 100% Alcohol	2 Euro per 1 Litre
2208909100-2208909900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Litre, 100% Alcohol	4Euro per 1 Litre

* 상기 HS CODE는 일반적인 소주, 과일주, 약주를 상징한 것으로 도수에 따라 제품별로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

4. 주류관련 세금

러시아의 주류관련 세율은 아래와 같다. (Article #193 of the R.F. Tax Code)

Excisable Items	Tax Rate (in % and/or in Roubles per Measuring Unit)
Ethyl Alcohol of all the kinds of raw materials (including raw Ethyl Alcohol)	18 Roubles per 1 Litre of water-free Ethyl Alcohol
Alcoholic products of volume share of Ethyl Alcohol, exceeding 25 % (except wines) and alcoholic beverages	135 Roubles per 1 Litre of water-free Ethyl Alcohol, contained by excisable items
Alcoholic products of volume share of Ethyl Alcohol, ranging from 9 to 25 % (except wines)	100 Roubles per 1 Litre of water-free Ethyl Alcohol, contained by excisable items
Alcoholic products of volume share of Ethyl Alcohol, coming up to 9 % (except wines)	70 Roubles per 1 Litre of water-free Ethyl Alcohol, contained by excisable items
Ethyl Alcohol containing unconventional wine (fortified wine)	88 Roubles per 1 Litre of water-free Ethyl Alcohol, contained by excisable items
Wines (except natural unconventional ones, Champagne ones and sparkling ones)	52 Roubles per 1 Litre of water-free Ethyl Alcohol, contained by excisable items
Natural unconventional wines, not containing Ethyl Alcohol (unfortified wine)	4 Roubles per 1 Litre
Champagne and sparkling wines	10 Roubles 50 kopeks per 1 Litre
Natural wines (except unconventional ones, not containing Ethyl Alcohol)	2 Roubles 20 kopeks per 1 Litre
Beer, containing standard volume share of Ethyl Alcohol, going up to 0,5 %	0 Roubles per 1 Litre
Beer, containing standard volume share of Ethyl Alcohol, ranging from 0,5 to 8,6 %	1 Rouble 55 kopeks per 1 Litre
Beer, containing standard volume share of Ethyl Alcohol, exceeding 8,6 %	5 Roubles 30 kopeks per 1 Litre

* 10월 현재 1US\$ = 29루블 수준

5. 연료용 알콜현황

연료용 알콜에 대한 생산 발전의 필요성과 실용성에 대해 러시아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 연방 농업부 장관이자 정부 알콜 시장 규제 위원회의 의장인 알렉세이 고르제예프는 에틸알콜 생산을 가장 전망이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2003년 말 고르제예프는 <21세기 러시아 경제>라는 잡지를 통해 러시아의 에틸알콜 생산은 향후 연료용 알콜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러시아는 연료용 알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르제예프는 석유 첨가제용 에틸 알콜 생산이 러시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에틸알콜의 60% 이상이 석유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에틸알콜의 경우 85%가 식품 제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반드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높은 옥탄가 함유 석유

첨가물을 재생 가능한 원자재(곡물, 작물, 감자 등)로부터 생산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그는 다른 국가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미 특별 프로그램 및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에틸알콜 생산이야말로 러시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고르제예프는 이와 같은 관점하에 러시아의 모든 에틸알콜 제조업체에서 에탄올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연간 19.5백만 데시리터를 생산하는 15개의 가수분해 공장(에틸알콜 → 에탄올)이 있으며, 식품 원자재에서 에틸 알콜을 생산하는 200여개의 업체가 있으나 식품 원자재에서 에틸알콜을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률은 50%를 넘지 못하는 실정으로, 러시아는 현재 연료용 알콜 제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에 관한 정확한 전망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알콜 생산 관련 법률안 개정은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